

99/02/08 공장 화재

01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신원 정밀 1F에서 불이 나 정밀기계 등을 태워 9 천여만원의 재산피해.

천정에서 '툭툭'하는 소리가 나며 불길이 보였다는 목격자의 말과 발화점이 천정인 점으로 미뤄 누전으로 인한 불꽃이 내·외벽 사이의 스티로폼에 엎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2/15 소각장 화재

16시 20분경 울진 동구 현대소각설비공장 내 소각장에서 불이 나 산업폐기물 5백여t을 태우고 5시간여만에 진화.

산업폐기물 내 인화성 물질로 인해 자연발화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2/10 러시아, 경찰서 화재

러시아 중부 사마라시 한 경찰서에서 화재가 발생, 18명 실종, 121명 부상, 51명 사망.

사마라시는 수년동안 마피아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화재도 경찰의 기록과 서류를 없애기 위한 조직적인 방화로 추정.

99/02/18 주택 화재

1시 5분경 경남 창원시 명서동 가정집 1층에서 불이 나 1명 화상, 1명 사망.

아버지가 잠자던 아들을 위해 팬히터에 기름을붓다 히터가 넘어져 불씨가 이불에 인화, 화재.

99/02/22 민통선 산불

15시 30분경 강원 철원군 민통선 내 야산에서 군부대 훈련 중 산불이 발생, 임야 70ha 소실.

이날 산불은 민통선 내 야산에서 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신호탄이 풀숲에 떨어져 일어난 것으로 발표.

99/02/23 백화점 화재

23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뉴코아백화점 구판 장외 특설매장에서 불이 나 1F 50여 평 소실, 10여분만에 진화.

특설매장의 조명시설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추정.

99/03/02 주택화재

22시 39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다가구 주택 2F 전세방에서 가스가 폭발, 1명부상.

10일간이나 비어있던 방에 부탄가스난로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가스난로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정전기에 의해 불이 발생, 폭발한 것으로 추정

99/03/02 중국, 광산 폭발사고

중국 북서부 간쑤성 티안쉬에 있는 금광으로 광맥을 찾아 들어간 광부들이 광산 입구를 막고 금을 캐내기 위해 입구에 폭발물을 터뜨려 31명 사망, 6명 부상.

99/03/06 방글라데시, 공연장 폭발사고

0시경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남서쪽 136km에 있는 제소르시의 회교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문화단체가 개최한 공연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최소 7명 사망, 100명 부상.

경찰은 이슬람 극렬분자들의 소행으로 추정.

99/03/07 시장 화재

1시 48분경 인천 서구 검단종합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7개 등 전소, 1시간여만에 진화

파일점포 앞에 쌓아둔 상자쪽에서 불이 나 천막으로 엎겨 붙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행인이 버린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3/12 공장 화재

3시 55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3공장 연료탱크 스프레이 작업실에서 불이 나 작업실 4평 소실.

작업실 배기장치의 회전날개가 회전 중 부서져 벽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99/03/13 터키, 쇼핑센터 화재

터키 이스탄불의 한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13명 사망.

괴한들이 주말 쇼핑객으로 붐비는 쇼핑센터 6층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대피 중 대부분 연기 질식사.

99/03/13 전화국 화재

12시경 경북 고령군 고령전신전화국 2F 노조사무실에서 불이 나 30분만에 진화.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 송신실로 스며들면서 고장을 일으켜 일부지역 전화 3시간 30분간 불통.

사무실 내에 사람과 화기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누전에 의한 불로 추정, 조사중.

99/03/14 인도, 판자촌 화재

16시 10분 인도 뉴델리의 판자촌에서 큰 화재가 발생, 최소 26명이 사망, 수천명의 이재민 발생.

화재는 인근 아무나강에서 불어오는 강풍으로 불길이 거세지며 수분만에 수천채의 판자집을 폐허화.

조리기구로부터의 스파크가 화재의 원인.

99/03/15 미국, 열차사고

미국 뉴올리언스행 열차가 시카고 남부의 한 건널목에서 트럭과 충돌한 뒤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 최소 12명 사망, 2백여명 중경상.

99/03/15 항공기 사고

12시경 경북 포항시 포항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56명을 태운 KAL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방호벽을 들이받아 동체가 파손, 77명 부상.

기체 결함, 조종 부주의, 활주로 수막현상 등 세갈래로 원인 추정, 규명중.

99/03/24 프랑스 터널화재

알프스산맥을 관통하는 몽블랑터널 안에서 발생한 트럭화재사고로 최대 40명 사망.

밀가루와 마가린을 적재한 트럭이 터널 중간 지점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나 터널 전체로 번지면서 40여대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임.

99/03/27 작업장 화재

1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선반작업장에서 불이 나 내부 80여평을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로 건물 내부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누전으로 인한 불로 추정.

99/03/28 카메룬 화산 폭발

21시경 카메룬 두알라에서 70km 떨어진 카메룬화산이 폭발, 용암 분출.

전날밤부터 몇차례 소규모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폭발 시작.

이 폭발로 화산 부근 립베에 있는 국영정유회사의 석유비축시설이 위험한 상태.

99/03/29 인도, 강진

0시 35분경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 최소 100명 사망, 수백명 부상.

이번 지진은 금세기 들어 최대 규모.